

# 개혁군주 정조의 특별한 리더십·위민사상

## 리더라면 정조처럼

김준혁 지음

조선의 개혁군주를 꼽으라면 단연 정조를 빼놓을 수 없다. 왕위 계승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는 난관을 극복하고 개혁의 아이콘이 됐다.



이 발견했다. 지난 1월 jibc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정조의 드라마틱한 삶을 소개했던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펴낸 '리더라면 정조처럼'이 그것.

저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조와 화성의 전문가다. 역사교사였던 아버지의 자전적 뒷자리에 타고 등교하며, 하루 한 쪽씩 역사 얘기를 들었던 것이 역사의 길로 들어선 계기였다. 이번 책은 정조 시리즈 3부작의 완결판으로,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 초점을 뒀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정조와 관련 재미난 일화다. 정조는 활쏘기에 능한 신궁이었다. 50발 중 49발을 명중시킬 정도의 실력을 겸비했다. 그러나 한 발은 과녁을 향해 쏘지 않고 허공으로 날렸다. 충분히 50발을 과녁에 명중시킬 수 있었지만 모두 맞추지 않았다.

조정 박제가는 문집에서 정조가 한 발을 허공으로 쏜 것은 겸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저자의 생각에 따르면, 정조의 본 의도는 아니다. 그러면서 주역에 통달했던 깊은 뜻을 풀어낸다.

"주역 점(占)을 칠 때는 보통 시초(蓍草)라고 하는 50개의 산가지를 사용하는데, 그중 1개는 태극(太極)을 상징해 사용하지 않고 49개의 산가지만 가지고 주역 점괘를 뽑는다. 그리고 그 점괘를 통해 세상의 이치와 변화의 숨은 뜻을 찾아낸다.

마지막 1발의 화살을 제왕의 산가지로 여겨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저자가 책의 부제를 '정조대왕의 숨겨



정조때 통일된 군사훈련을 위해 도보(圖譜)로 편찬된 군대교련서. <더봄 제공>

진 리더십 코드 5049'라고 정한 이유다. 정조의 리더십을 49가지 정책과 실천의 사례로 풀어낸 것과도 동일한 맥락이다.

사실 정조는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또한 자신에 대한 반대세력들의 온갖 음모와 폐출 위기도 겪었다. 그럼에도 당대 개혁군주로 시대를 이끌었으며 오늘날에도 추앙받는 것은 특별한 리더십과 '정치적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군신정치를 내세웠다. 누구보다도 인간적이었지만 한편으로 친인척과 측근들의 잘못은 추상같이 다스렸다. 많은 양의 정무를 소화하면서도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길을 나서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스스로 공부한 의학적 지식을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며, 외세의 침입을 막고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병법과 무예를 익혔다. 이러한 솔선수범과 소통의 리더십은 관료와 양반사대부 그리고 백성들을 감동시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경문화의 시대를 만들어냈다."

그뿐이 아니다. 정조는 '사중지공(私中公)', '손상익하(損上益下)를 강조했다. '공적인 일을 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며 이익이 있을 땐 함께한 이들에게 고른 분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봄·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소설 보다 : 여름 2020= '소설 보다'는 문학과지성사가 분기마다 '이 계절의 소설'을 선정,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계절마다 엮어 출간하는 단행본 프로젝트로 2018년에 시작했다. 책에는 2020년 봄 '이 계절의 소설' 선정작인 강화길의 '가원(佳園)', 서이제의 '0%를 향하여', 임술아의 '희고 둥근 부분' 등 총 3편과 작가 인터뷰가 실렸다.

<문학과지성사·3500원>  
▲관찰과 표현의 과학사=그림이 시각 언어로서 과학이라는 학문에 자리 잡는 과정과 함께 17세기 과학 삽화를 통해 당시 과학 혁명의 변화를 추적한다. 갈릴레오가 관측하고 그린 달, 네나할 것 없이 자신의 망원경이 최고라며 발인 결합, 대항해 시대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천문학자들의 분투, 목성의 위성과 토성의 고리를 둘러싼 논쟁 등을 담았다.

<이데아·1만8000원>  
▲팩트체크의 정석=SBS 8뉴스의 팩트체크 코너 '사실은'에서 다룬 아이템 가운데 흥미로운 주제를 뽑아 이색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아이템 발굴에서부터 상세한 취재 과정까지 팩트체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다룬 현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또 보도 내용이 사회적 갈등 사안을 함의하는 데 어떻게 일조했는지 보도 이후 반향을 다루고



<한울·2만2000원>  
▲정통 이탈리아 요리의 정수=30여년간 이탈리아 요리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마르첼라 하잔의 요리책. 하잔의 '정통 이탈리아 요리책' (1973)과 '더 많은 정통 이탈리아 요리' (1978)를 합치고 보완해낸 완결판을 한국어로 소개한다. 초보자도 수준 높은 맛을 끌어내도록 돕는 명쾌한 레시피를 담았으며 이탈리아 요리의 기본, 바탕에서 맛을 끌어올리는 전통적 조리법 등을 알려준다.

<마티·4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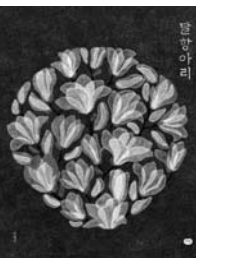
## 어린이·청소년 책

▲우리는 일 년내내 방학이에요! =실화를 바탕으로 쓴 동화로, 필리핀의 국제학교에 다니게 된 시완이와, 필리핀에서 생계를 위해 일 년 내내 방학인 우타와의 우정을 통해 '행복할 권리와 어린이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했던 '인권'이 시완이와 우타의 이야기이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알게 해준다.

<폼타·1만1000원>  
▲달항아리=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한 아낙네가 세 아이를 품에 안고 묵묵히 살아 내야만 했던 삶의 이야기를 우리 민족을 담은 달항아리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역사적 의미가 아닌, 참혹한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에 귀 기울이며 일제 강점기, 해방, 한국 전쟁, 분단 등을 겪고 견뎌 낸 이들의 삶에 위로로 전한다.

<다람·1만3000원>  
▲레토르트 심리학= '심리학' 하면 무엇을 생각할까? 우울이나 자존감, 대인관계 그것도 아니면 심리테스트를 먼저 떠올리지 않았을까? 심리학의 연구는 '살아보니 그렇더라'는 주장이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의 이론이 되어 자리 잡는 과정이다. 이 책은 흔한 심리학 책처럼 '힐링'을 얘기하지 않는다. 대신 마음의 작동원리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준다. 삶에 대한 통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권한다.

<채륜·1만5500원>



# 말의 매력과 집중도 높여주는 '자신만의 말하기'

## 말하기를 말하기

김하나 지음

베스트셀러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통해 김하나 작가를 알게 됐고, 그녀가 진행하는 팟 캐스트를 몇차례 들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운영하는 '책읽아웃-김하나의 측면돌파'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녀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출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 질문을 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자신을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김하나가 말하기에 대한 글을 엮은 '말하기를 말하기'를 펴냈다. 카피라이터 출신인 작가는 이 책이 '말하기라는 거대한 세계를 탐색하는 작지만 중요한 열쇠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말하기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겉기'처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작가는 말하기에 대해 '생각하는 것' 만으로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며, 누구보다 내성적이었던 자신이 지금 진행자, 강연자 등으로 활동하며 어떻게 말하기의 세계로 들어갔는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들려준다. 특히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신만의 목소리(생각)'를 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저자는 가장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발달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말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말하기에 신경쓰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대다수 사람들이 말을 하므로, 일상에서 수많은 사례를 접하며 수많은 선생님과 반문교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대화 상대와 나누는 양질의 대화'를 좋아하는 저자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에 있는 것, 집중력의 한계를 아는 것, 음악처럼 자유로운 흐름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카피라이터 시절, 1년 간 성우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포즈(Pause)', 즉 '잠깐 멈춤'의 중요성이었다. 말의 매력과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이는 참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이다. 물론 '타르처럼 굳어가면서 벗어나고픈 압박감으로 변하는 침묵'은

사절이다. 좋은 침묵은 각자를 고독 속에 따로 가두지 않고, 침묵에 함께 몸을 담근 채 서로 연결된다.

"아니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런 걸 꼭 말로 해야 돼?" 우리가 흔히 나누는 대화 속에도 말하기의 습관이 숨어 있다. 상대가 말을 못 알아 들으면 그 책임이 발화자에게 있어 상대가 알아들을 때까지 몇번이고 정확히 설명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듣는 사람은 상대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듣고 '눈치껏' 비위를 맞춰야한다. 상대를 미루어 짐작하며 발언의 숨은 의도를 캐내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저자는 이제 "그런 것까지 굳이 말하지"고 강조한다. 효율적으로 발달한 도구가 있는데 왜 말을 안해 놓고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가정해야 제대로 된 대화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다.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자신의 '말하기'를 돌아보게 된다.

<쿨라주·1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문모델 서경석